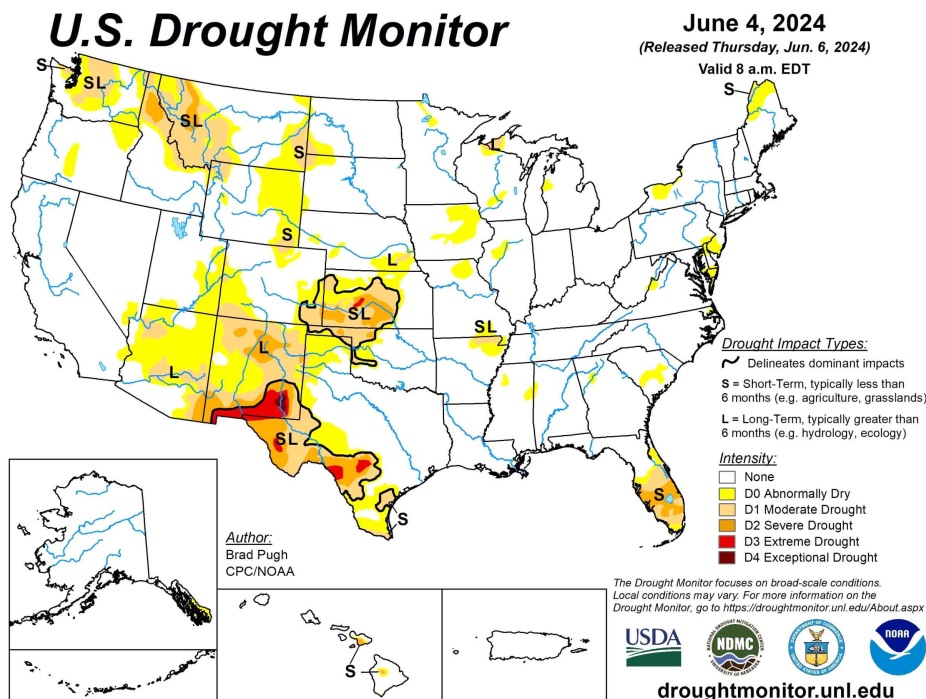


6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4)

□ 미국 기후 현황(6/2-6/8)

미국 중부와 동부 전역에서 극도로 활발한 날씨를 보였던 마지막 주는, 지난 주들과 비교해서 토네이도 활동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폭우와 국지적으로 심한 천둥번개로 특징되었다. 연속적으로 내린 극심한, 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이었던, 폭우가 캔자스에서부터 미주리 남부까지 그리고 대평원 남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 삼각주 쪽으로 뻗어 나갔다. 오대호 상부 지역에서부터 뉴잉글랜드 북부까지 그리고 고원 중부와 남부 및 남동부 전역을 가로질러 드문드문 위치해 있는 지점들까지 뻗어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들에도 상당량의 비(1-2인치 이상)가 내렸다. 그러나 대서양 남부 지역은, 적어도 플로리다 남부를 가로질러 주말의 소나기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체로 건조했다. 그밖에, 강해지고 있는 고기압 능선이 로키산맥의 서쪽 지역을 지배하면서 북서부에서는 소나기가 감소했고 남서부에서는 더위가 심해졌다.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동쪽으로 로키산맥과 고원의 중부와 남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다. 북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북부의 일부에서, 온도 수치가 평년보다 평균 5° F 이상 높았다. 한편 평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인 곳은 일반적으로 동부 평원, 중서부 하부 그리고 남동부로, 아울러 북부의 레드 리버 계곡처럼 먼 동쪽에 있는 캐나다 국경 지대로 제한되었다. 사막 남서부의 낮은 고도에서는 110° F 이상의 기온이 관측되었고 한편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서 세 자리 수 값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 콜로라도 남동부처럼 먼 북쪽까지 확장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6/3-6/9)

중서부, 북동부, 태평양 북서부, 대평원 중부와 남부, 로키산맥, 남부 그리고 남서부의 일부에 평년 대비 최소 2배의 주간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은 6인치 이상의 비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북동부, 텍사스 그리고 서부의 넓은 부분은 평년보다 6°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평원 중부와 북부, 로키산맥 북부, 남부 및 워싱턴 일부는 평년보다 다소 선선했다.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까지 몇몇 장소들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6/2-6/8)

#### ■ 유럽:

서유럽 전역의 화창한 하늘은 최근의 과도한 습기로부터 반가운 휴식을 제공했으나 유럽 대륙의 중부와 동부 전역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북부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포화된 토양이 마르면서 겨울 작물의 건조를 촉진했다. 이런 주요 겨울작물 지역들 가운데 다수가 5월초부터 과도한 습기로 예외였었고 이 습기는 겨울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었고 수확량 기대치를 낮추었다. 반면 독일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부터 대부분의 동유럽까지 보통 내지 심한 수준의 소나기와 천등번개(10-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으나 겨울 작물의 건조와 초기 수확을 늦추었다. 더 남쪽에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두 나라 모두 쌓여가는 열기 (35-40° C)가 여름작물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기는 했으나, 건조한 날씨가 겨울곡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다. 성숙한 겨울작물과 아직은 영양기에 있는 여름작물들에게 미친 영향이 미미하기는 했지만, 더위 (30-35° C)가 남동부로도 확대 되었다.

#### ■ 구소련(서부):

서부와 북부 재배 지역에 비가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는 더위와 가뭄이 심화되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 그리고 러시아 중서부 전역에 보통 내지 심한 수준의 비 (10-105 mm)가 내려서 종실비대 중인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아울러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해서도, 유지 또는 개선해주었다. 그 비가 가장 필요했던 곳은 러시아의 남부 지방의 북쪽 일부였다. 이곳은 봄이 시작된 이후로 심하거나 극심한 가뭄이 겨울 밀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낮추었고 봄 곡물과 여름작물을 심어야 할 토양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 가뭄이 심화되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서부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4-7° C 높았고 러시아 남부 지방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 C에 도달하거나 35° C를 넘어갔다. 그 더위는 겨울 밀의 성숙을 재촉했고 여름작물들이 영양기를 빠르게 지나도록 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폭풍우 치는 날씨로 인해 광범위한 강우가 발생했고 최남단 지역들에서는 강우량이 200 mm를 넘겼다 (총 강우량은 양쯔 강 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그 습한 날씨가 조생종 벼의 성숙을 방해했지만 그 수분은 영양기 여름작물들에게 유익했다. 북동쪽에서도 주기적으로 내린 소나기 (10-50 mm)가 여름작물들 (대두와 옥수수)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이는 성장기 초기에 수분 조건이 양호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습했던 다른 곳들과 대조적으로 화북평원은 건조함과 약간의 더위 (섭씨 30도 중반의 기온)가 세력을 떨치고 있어서 밀의 수확을 촉진했다. 한편 서쪽 (신장)에서는 면화 재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최근 수확량이 많았던 해 (2020년과 2022년)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외에 한반도에서는 계절 초 강우량이 일정치 않아서 단기 건조가 발생했고 반면에 일본에서는 비가 일정하게 내리면서 양호한 수분 상태를 유지했다.

■ 호주:

2주 연속으로 아주 필요했던 비가 서호주 전역에 내려서 밭아 내지 출현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표토 수분을 더욱 올려주고 있었다. 서부 밀 지대에서 강우량은 25~50 mm 또는 그 이상의 범위를 보여주었는데 동부 지역에서는 총 5~25 mm가 일반적이었다. 그 비는 근권 토양 수분을 평년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어 계절 초 작물 전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동쪽으로 더 멀리 남호주와 빅토리아 서부의 날씨는 다시 대체로 건조해졌고 토양 수분은 평균 이하로 유지되었다. 광범위하면서 일정한 강우는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밀, 보리, 캐놀라의 초기 발달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반가울 것이다. 그밖에 호주 동부 전역에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서 최근에 심은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 대한 계절 초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선선한 날씨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3° C 낮음)가 호주의 남부와 동부 대부분을 덮어서 겨울 작물의 발달 속도를 늦추었다.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2° C 높은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 아르헨티나: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도왔고 또 출현 중인 겨울 곡물들의 초기 발달도 촉진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아르헨티나 중부 (라팜파,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리고 크로도바에서부터 엔트레리오스까지 인접한 장소들)에서는 평년보다 1-2° C 높았고 더 북쪽은 - 이곳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초반에 이르렀다 - 평년보다 4° C 가량 높은 범위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남부 농업 지역들에서만 결빙이 생겼다. 가장 동쪽에 있는 농업 지역들에 약한 비 (1-10 mm)가 내렸고 그 외에는 완전한 건조로 만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6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46 및 94 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39 퍼센트 수확되었다; 밀과 보리는 각각 21 및 13 퍼센트 파종되었다.

## ■ 브라질:

홍수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히우그란지두술의 농경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대부분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브라질의 최남단 주 전역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았으며 주로 해안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총강우량이 10 mm를 넘겼을 뿐이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2-5° C 높은)이 그런 건조함을 동반했고, 야간 저온이 국지적으로 종종 5° C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후반에 이르렀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6월 6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96 및 94 퍼센트 수확되었다. 다른 주요 농업 지역도 건조하면서 일반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만연했고 북동부 해안을 따라 예외적으로 계절 강우 (10-100 mm)가 기록되었을 뿐이다. 주간 기온은 평균적으로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고 중앙 내륙 지역에 있는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곳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에 이르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기작 옥수수는 6월 3일 현재 7 퍼센트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51 퍼센트는 성숙 중이었다; 한편 밀은 73 퍼센트 파종되었다. 마투그로수 옥수수는 6월 7일 현재 11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이는 5년 평균 속도 (9 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이다.